

여성 기성복 소비자의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장 165cm 이상의 여대생 중심으로—

한양여자전문대학 의류학과

조교수 이 선 명

目 次

I. 서 론	IV. 결과 및 고찰
II. 이론적 배경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기성복의 치수규격	2. 의복치수 만족도
2. 의복 만족도	3. 의복 만족도
III. 연구방법 및 절차	V. 결론 및 제언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참고문헌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ABSTRACT

I. 서 론

의복구매의 중요한 소비계층인 20대 초반의 여성체형은 나이가 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체형의 다양성이 적게 나타나기는 하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특징적 변화를 보인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20대 미혼여성의 이상형이 키가 크고 몸무게가 가벼우며 사지는 길며 신체가 마른형으로 가슴둘레는 예외로 들레치수가 작은것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다.¹⁾ 또, 상반신보다 하반신에 대해 마르고 작은 신체를 더욱 원하며, 하반신을 체형 분류한 결과에서는 전후면의 실루엣이 일자형에 가깝고 하반신 각 기준점의 높이가 높고 긴 편평한 체형의 분포가 크게 나타나 과거 20대 미혼여성 체형에 비해 좀 더 서구화가 되어가는 체형의 변이경향이 나타났다²⁾고 하였다.

한편, 기성복 생산업체는 20대 여성들의 기성복에 대한 요구수준과 관심이 소재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뿐 만 아니라, 서구화가 되어가는 신체적 특징에 잘 맞고 자신의 신체적 결함까지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보완하여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는 의복 기능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변화하고 있다.

의복의 기능이 여러 다른 방법으로 신체의 뚜렷한 크기(size)를 확대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힘이 더 많아진 느낌, 즉 우리에게 신체적 자아(somatic self)의 확장감을 부여³⁾하여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신체적 실재(physical reality)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의복을 편안하게 잘 입었다고 느낄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나, 불편하고 부적당한 의복은 심리적으

1) 정재은,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7, No. 3, 1993, p.457.

2) 성화경외 4인, 20대 미혼여성의 하반신 체형분류 및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Vol. 21, No. 4, 1997, p739.

3)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95, p.266.

로 위축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성복의 중요한 소비자 집단이며 의복의 맞춤새에 매우 민감한 청년기 후반기의 여성이면서 신장이 165cm 이상인 큰 키 집단에 속하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그 이유는 과거 20대 미혼 여성의 체형보다 평균 신장이 커지고 있고 좀 더 서구화가 되어가는 체형변이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²⁾에 맞추고, 기성복의 치수에 대하여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⁴⁾로 볼 때 신장이 165cm 이상의 큰 키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이러한 큰 키 집단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체의 적합성이 고려되어 의복치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결정하는 의복 만족도를 향상시켜 신장 165cm 이상의 20대 여성 소비자의 불만족을 해결하고 기성복 업계의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성복 구입시 맞춤새(fit) 결정부위를 조사한다.

둘째, 의류 품목별로 의복치수 만족도와 불만족 부위를 조사한다.

또한, 신장과 체형에 따라 불만족 부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의복 만족도의 요인을 알아 본 후, 의류 품목에 따라 의복 만족도의 각 요인과 기성복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성복의 치수규격

소비자들은 기성복을 선택할 때, 의복을 직접

착용하여 맞춤새를 확인하기 전에 의류의 호칭을 통해서 기성복 치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구미 각국에서는 여성 기성복의 호칭을 일반적으로 나이, 신체크기, 특히 가슴둘레의 치수를 중심으로 호칭 체계가 이루어져 왔다.

기성복 치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민동원⁵⁾은 2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기성복 구매 및 사용시 불만족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체형의 다양성에 비하여 기성복의 치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길이와 둘레항목이 모두 잘 맞는 치수의 의복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홍병숙⁶⁾은 30대~5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성복 치수의 만족도 연구에서 몸에 잘 맞지 않는 기성복의 부위는 소매길이, 옷길이, 어깨너비, 복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전체적인 여유분 순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의류치수 연구와 비만체형이나 왜소체형을 위한 다양한 치수의 제품 생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국제 의류치수 규격 마련을 위해 1991년 발표한 기술보고서에서는 의류치수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 여성의 체형을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인 드롭치(drop)와 신장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신장에 따라서 작은키(short), 보통키(regular), 큰키(long)로 분류하였다.

또한, 의류제품의 치수 설정과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이용되는 신체부위 즉, 기본 신체부위는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신장으로 하였고, 이들 신체치수의 간격을 각각 4cm, 4cm, 8cm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생산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등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1979년, 1986년, 1992년 3차례에 걸쳐 공업진흥청이 주관하여 표

4) 이선명,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의 관계, 한양여자전문대학교 교수논문집 Vol. 20, 1997, p.200.

5) 민동원, 기성복의 구매 및 사용시 불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6) 홍병숙, 기혼여성의 의복구매의사 결정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준연구소에서 국민표준체위⁷⁾를 조사하여 이 인체 측정자료가 산업제품의 규격화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치수측정은 별도 “의류품의 치수명세 측정부위”의 명시된 신체치수는 정밀도를 가진 자료 명확히 재며 제품의 치수도 예시된 부위를 측정하되 평평한 대위에 놓고 부자연한 주름이나 장력이 없도록 한 후 잴다.

1989년까지 한국공업규격은 신사복 상의에서부터 여자용 운동복에 이르기까지 옷의 종류에 따라 41개 규격(KS K 0035~KS K 0096)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1997년 7월에 개정된 섬유제품 분야 상품별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에서 성별과 인체의 성장단계 혹은 착용상 옷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옷의 범위를 드레스 셔츠, 남성복, 여성복, 유아복, 양말, 브래지어의 치수의 6개 규격으로 단순화하였다.

현행(1997년) 개정된 의류 종류별 호칭 및 기본 신체치수는 “cm” 단위없이 “-”로 연결하여 호칭으로 사용하나 신장을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가슴둘레만을 호칭숫자로 사용한다.

의류의 치수표시는 신체치수로 표시하여야 하며 드레스 셔츠(Y셔츠)는 제품치수를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신체치수를 표시할 수 있다. (반소매 제품은 화장을 제외한다.)

여성복의 치수(KS K 0051)는 상의류 및 전신용 의류인 경우에는 가슴둘레-엉덩이둘레-신장순으로 하고 하의류는 허리둘레-엉덩이둘레순으로 하지만 피트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허리둘레-신장으로만 표기한다.

셔츠류, 편물계 상의류는 가슴둘레만 기입하고 내의류, 잠옷류, 홈드레스, 슬립은 가슴둘레-신장순으로, 수영복류는 가슴둘레-엉덩이둘레순

으로 호칭을 표기한다.

또한,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신체치수는 100cm를 기준으로 가슴둘레 및 허리둘레는 3cm, 엉덩이둘레는 2cm, 신장은 5cm 간격으로 연속한다.

피트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않는 경우의 신체치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및 신장은 각각 5cm 간격으로 연속한다. 예를 들면, 속내복 상의인 경우에 가슴둘레가 88cm, 엉덩이둘레가 90cm, 신장이 165cm인 경우의 호칭은 88-90-165로 하며 속내복 하의는 허리둘레가 70cm, 엉덩이둘레가 86cm인 경우의 호칭은 70-86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2. 의복만족도

Mclean(1978)⁸⁾은 “의복만족도는 자신의 의복에 대한 만족의 정도이다.”라고 정의하였고 Ryan(1966)⁹⁾은 의복만족도에 대하여 첫째, 의복의 속성 및 착용자의 가치관에 의해 변하는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감정들이다. 둘째, 어떤 특별한 의복의 구입, 착용행위는 그 의복에 대한 만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의복만족도의 측정변수로는 의복의 내구성, 관리방법, 착용시 형태유지등과 같은 실용적 측면, 색상, 디자인 등의 외형적 측면, 상황에 따른 적합성의 사회적 측면이 포함된다고 했다.

Northeast Regional Research Project에서 만족도의 구체적 요인을 살펴보면 외모, 안락감, 내구성, 관리의 편안함, 입고 벗기 쉬움, 사용후의 상태(수축, 퇴색, 보푸라기 등), 입는 동안의 특성(말썽함의 유지, 형태유지), 착용상황의 적절함, 여러 상황에서의 착용 가능성등으로 나타났으며

7) 공업진흥청,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 1992.

8) Mclean, F.P.,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the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University, 1978.

9) Ryan, M.S.,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e, 1966.

이 중에서 어울림, 안락감, 외모가 다른 요인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spach(1961)¹⁰⁾는 의복에 대한 만족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유행을 선호하고 멋있게 보이는 옷에 만족하는 형 둘째, 안락감을 중시하고 실용적인 옷에 만족하는 형 셋째, 다른 사람의 옷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형으로 분류하였다.

Shannon(1961)¹¹⁾은 의복 만족도의 평가기준을 색상, 디자인, 질감과 같은 감각적 요소, 적합성, 입었을때의 만족(Satisfaction in use), 직물의 성질, 가격, 권위 및 유행의 7가지로 구분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때 의복 만족도는 의복의 스타일, 색상, 질감, 문양, 바느질, 관리, 가격, 활동성, 상황에의 적합성, 맞춤새, 유행, 개성 및 착용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Roach & Eicher(1965)¹²⁾은 의복 만족도는 의복의 특징과 개인의 관심 및 가치관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Miller와 Ryan(1960)¹³⁾은 저가품 의복보다는 고가품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게 어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복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김재숙(1976)¹⁴⁾은 여대생의 의복의 만족도, 신체 및 외모의 만족도는 여가 이용 및 사회활동 참여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Mclean(1978)⁸⁾은 넓은 연령층(20~89세)의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와외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의복 만족도 측면인 맞춤새(fit)와 보임새(appearance)는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여성들이 의복 만족도가 제일 낮았으며 60대 여성들이 의복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Wall(1979)¹⁵⁾은 의복착용의 만족도는 실용적 가치가 가장 큰 요인이며 착용이나 관리시 문제점이 적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때의 환경적 요인은 수입과 연령이라고 하였다.

이희남(1985)¹⁶⁾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신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의복 만족도도 높았으며 좀 더 여성적인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즐겨 착용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체형이 비만해 질수록 의복 만족도가 낮았으며 체형이 드러나지 않는 의복 형태를 많이 착용하였다고 하였다.

이외에 1990년대 이후부터 기성복 사이즈와 관련된 의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체형 및 연령에 따른 의복 만족도 연구¹⁷⁾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장 165cm 이상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성복의 치수와 의복 만족도와외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10) Anspach, K., Clothing Selection and the Concep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3, No. 6, 1969.

11) Shannon, L.E., Consumer Satisfaction with Cotton Fabrics in Relation to Selected Physical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1961.

12) Roach, M.E. & Eicher, B.,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York : John wiley & Sons, Inc, 1965, pp.247~249.

13) Miller, M.S. and Ryan, M.S., Mother and daughters Select School D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2, No. 6, 1960, pp.455~456.

14) 김재숙, 여대생의 의복과 용도의 만족도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Vol. 14, No. 1, 1976, pp.1~7.

15) Wall, M., Dicky, L. E. & Talarzy, K.W., Profiling Consumer Communication of Complaints about Clothing Performa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7, No. 6, 1979, pp.368~378.

16) 이희남,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 및 신체충실치수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Vol. 6, 1982, pp.387~408.

17) 정홍숙, 정삼호, 성인여성의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와 체형 및 연령과의 관계, *중대가정논총* Vol. 4, 1990.

Ⅲ. 연구방법 및 절차

Ⅳ.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성남과 오산, 전라도 광주 그리고 경남 창원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예비조사를 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1997년 8월에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총 200부를 배부하여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166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예비조사때에 의류 제품속성의 중요도를 알아 본 후 작성된 보임새(appearance) 측면의 의복 만족도 8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맞춤새(fit) 측면인 치수의 사용실태에 관한 문항은 한국공업진흥청⁷⁾에서 제시한 방식에 의거하여 9품목의 여성복 즉, 스웨터(니트), T셔츠(플라셔츠 포함), 블라우스(남방), 재킷, 바지(청바지 포함), 스커트, 원피스, 점퍼, 버버리나 코트류에 대하여 치수규격에 대한 만족도와 기성복 구입시 맞춤새 결정부위 그리고 신체에 잘 맞지 않아 불만족을 느끼는 부위 선정에 대한 문항은 각각 1개씩 만 답하도록 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연령, 신장, 몸무게, 한달 용돈, 월 의복지출비, 의류학과 전공 학생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았고 이 중에서 몸무게와 체중으로 신체충실지수를 구하여 Röhrer Index 법으로 체형을 구분하는데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PC⁺¹⁸⁾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 요인분석, χ^2 검증, 회귀분석으로 자료를 통계처리하였다.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신장이 165cm 이상인 여대생 166명으로 신장을 고려한 편의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66명

변 수	구 분	N(%)
1. 연 령	18~19세	64(38.5)
	20~21세	68(41.0)
	22세이상	34(20.5)
2. 신 장	165~168cm미만	97(58.4)
	168cm이상	69(41.6)
3. 신체충실지수 (Röhrer Index)	마른체형(1.2 미만)	106(63.9)
	표준체형(1.2~1.5)	60(36.1)
	비만체형(1.5 이상)	-
4. 한 달 용 돈	10만원 미만	19(11.5)
	11~20만원	70(42.2)
	21~30만원	53(31.9)
	31~40만원	16(9.6)
	41~50만원	7(4.2)
	51만원 이상	1(0.6)
5. 월 의복지출비	5만원 미만	64(38.6)
	5~10만원	60(36.1)
	11~15만원	25(15.1)
	16~20만원	12(7.2)
	21~25만원	3(1.8)
	25만원 이상	2(1.2)
6. 학 과	의류학 전공	113(68.1)
	의류학 비전공	53(31.9)

신체 충실지수는 Röhrer Index로 체형을 마른형과 표준형, 그리고 비만형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비만 체형은 한명도 없었다.

<표 1-2>는 표본의 신장을 165cm 부터 168cm 미만까지의 집단 I 과 168cm 이상인 집단 II로 구분하여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으로 교차분석을 한 것이다.

18) 채서일의 2인,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현사, 1993.

품 목 (치수 만족도의 평균값)	부 위	맞춤새 결정부위		불만족 부위	
		N (%)	계(명)	N (%)	계(명)
블라우스(남방) (2.940)	가슴둘레	55(33.1)	166	15(15.6)	96
	허리둘레	2(1.2)		8(8.3)	
	목둘레	17(10.2)		5(5.2)	
	소매길이	51(30.7)		33(34.4)	
	어깨너비	41(24.7)		24(25.0)	
	진동부위	—		11(11.5)	
재킷 (2.801)	가슴둘레	33(20.4)	162	14(14.3)	98
	허리둘레	6(3.7)		4(4.1)	
	영덩이둘레	9(5.6)		4(4.1)	
	소매길이와폭	48(29.6)		24(24.5)	
	어깨너비	63(38.9)		21(21.4)	
	진동부위	3(1.9)		4(4.1)	
	재킷길이	—		27(27.6)	
바지(청바지포함) (2.578)	허리둘레	29(17.9)	162	20(16.3)	123
	영덩이둘레	94(58.0)		34(27.6)	
	아랫배둘레	5(3.1)		11(8.9)	
	바지통	12(7.4)		24(19.5)	
	밑위길이	9(5.6)		16(13.0)	
	바지길이	13(8.0)		18(14.6)	
스커트 (2.744)	허리둘레	51(30.9)	165	26(25.5)	102
	영덩이둘레	70(42.4)		29(28.4)	
	아랫배둘레	3(1.8)		13(12.7)	
	스커트폭	5(3.0)		6(5.9)	
	스커트길이	35(21.2)		26(25.5)	
	영덩이길이	1(0.6)		2(2.0)	
원피스 (2.761)	가슴둘레	33(20.4)	162	12(11.9)	101
	허리둘레	12(7.4)		7(6.9)	
	영덩이둘레	15(9.3)		16(15.8)	
	원피스길이	69(41.6)		35(34.7)	
	등길이	14(8.6)		17(16.8)	
	어깨너비	4(2.5)		5(5.0)	
	원피스폭	15(9.3)		9(8.9)	
점퍼 (3.006)	가슴둘레	38(23.5)	162	9(11.5)	78
	허리둘레	10(6.2)		9(11.5)	
	목둘레	—		3(3.8)	
	소매길이	35(21.6)		32(41.0)	
	어깨너비	79(48.8)		25(32.1)	
버버리나코트 (2.970)	가슴둘레	6(3.7)	163	2(2.2)	92
	허리둘레	2(1.2)		5(5.4)	
	영덩이둘레	1(0.6)		2(2.2)	
	버버리나코트폭	30(18.4)		11(12.0)	
	버버리나코트길이	100(61.3)		41(44.6)	
	어깨너비	15(9.2)		14(15.2)	
	소매길이	9(5.5)		7(7.6)	
	등길이	—		10(10.9)	

<표 1-2> 신장에 따른 체형분류

신 장 체 형	집 단 I (165~168cm미만)	집 단 II (168cm이상)	계(명)	χ ²
	마른체형	57(58.8%)		
표준체형	40(41.2%)	20(24.6%)	60	2.829*
계	97(100.0%)	69(100.0%)	166	

* P<0.05

신장이 165cm에서 168cm 미만이면서 Röhre러지 수가 1.2미만인 마른체형이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2. 의복치수 만족도

1) 기성복 구입시 맞춤새(fit) 결정 부위

의류품목에 따라 의복치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기성복 구입시 맞춤새 결정 부위는 어디로 하는가를 알아 보았다.

<표 2-1>에서와 같이 품목별로 응답자의 인원 수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설문지의 항목에서 기타 부위에 답한 것을 제외시키고 빈도분석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T셔츠, 블라우스의 상의류에서는 가슴둘레이었으며 바지(청바지), 스커트의 하의류는 엉덩이둘레로 나타나 한국공업진흥청⁷⁾의 섬유

제품 품질 표시방법과 일치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의류이면서 겉옷인 재킷과 점퍼류는 어깨너비로 나타났으며, 스웨터(니트)류와 원피스, 그리고 버버리나 코트류와 같이 옷길이가 긴 품목에서는 그 옷의 길이라고 답하였다.

이와같이 어깨너비와 옷의 길이는 유행에 따라 치수 변화가 많고 착용자의 옷입는 습관에 따라 개인차가 많은 부위이므로 기성복업체에서는 단순히 신장에 의한 사이즈 구분이 아닌 그 시대의 이상형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과 세분화된 치수구분으로 소비자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2) 의류 품목에 따른 의복치수 만족도

의류 품목별로 치수만족도는 5점 Likert로 조사하여 「매우 만족치 않다」를 1점, 「보통이다」는 3 점,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내

<표 2-1> 품목별 의복치수 만족도와 구입시 맞춤새(fit)결정 부위와 불만족 부위

품 목 (치수 만족도의 평균값)	부 위	맞음새 결정부위		불만족 부위	
		N (%)	계(명)	N (%)	계(명)
스웨터(니트)류 (2.759)	가슴둘레	51(31.3)	163	18(14.9)	121
	허리둘레	3(1.8)		13(10.7)	
	엉덩이둘레	10(6.1)		10(8.3)	
	소매길이	39(23.9)		32(26.4)	
	스웨터(니트)길이	60(36.8)		48(39.7)	
T 셔츠(폴로셔츠) (3.120)	가슴둘레	68(41.2)	165	18(20.0)	90
	허리둘레	1(0.6)		6(6.7)	
	목둘레	11(6.7)		13(14.4)	
	소매길이	19(11.5)		24(26.7)	
	어깨 너비	66(40.0)		22(24.4)	
	진동부위	-		7(7.8)	

19) Labat, K.L. & Delong, M.R.,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1990, pp.43~48.

었다. 그 결과는 T셔츠(폴로셔츠)가 3.12로 품목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만족의 수준은 「보통이다」정도이므로 의복치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T셔츠 다음은 점퍼→버버리나 코트→블라우스(남방)→재킷→원피스→스웨터(니트)류→스커트→바지(청바지) 순이었다. 바지(청바지)는 2.578로 치수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Labat와 Delong¹⁹⁾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바지의 치수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지 스타일과 실제 체형과의 맞음새가 좋지 않거나 점점 서구화가 되어가는 하반신 체형변이에 맞는 적합성이 좋은 패턴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류 품목에 따라 불만족부위 조사는 맞음새(fit)에 불만족을 느끼는 응답자만 선택하여 불만족 신체부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표 2-1>와 같이 품목별로 전체 인원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스웨터(니트)류는 전체 조사인원 166명 중에서 121명이 불만족하다고 하였고 그 부위중에서 스웨터(니트)의 옷길이에 가장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은 소매길이, 가슴둘레 순이었다.

T셔츠의 경우는 90명이 불만족하다고 답하였고 소매길이, 어깨너비, 가슴둘레 순이었으며 블라우스(남방)의 경우는 96명이 불만족하다고 답하였고 소매길이가 가장 불만이 많고 어깨너비, 가슴둘레이었다.

재킷의 경우는 98명이 불만족하다고 하였으며 재킷길이, 소매길이와 폭, 그리고 어깨너비 순이었다.

바지(청바지)는 123명이 불만족한다고 하여 영

덩이둘레, 바지통, 허리둘레 순이었고 스커트는 102명이 불만족하다고 하였고 엉덩이둘레, 허리둘레(스커트길이), 아랫배둘레 순으로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원피스는 101명이 불만족한다고 하였고 원피스 길이, 등길이, 가슴둘레 순이었고 점퍼는 78명이 불만족하다고 하여 소매길이, 어깨너비, 가슴둘레(허리둘레) 순으로 불만족 부위를 나타내었다.

버버리나 코트는 92명이 불만족하다고 하였고 옷길이가 가장 큰 불만족 부위였으며 다음으로는 어깨너비, 등길이이었다.

이와같이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 부위는 소매길이, 옷길이,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등길이 순으로 홍병숙⁵⁾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신장과 체형에 따른 의복치수 불만족부위를 모든 품목별로 χ^2 검증한 결과는 T셔츠(폴로셔츠), 바지(청바지) 그리고 재킷 품목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T셔츠(폴로셔츠 포함)에서의 불만족부위는 신장이 165cm에서 부터 168cm 미만 집단과 168cm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 χ^2 검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소매길이가 가장 불만족이 많아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두 집단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조사한 대상자의 체형이 <표 1-1>에서와 같이 비만체형은 없으나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이므로 신장이 클수록 신장에 대한 둘레 항목의 치수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X자형

<표 2-2> 신장에 따른 T셔츠 불만족 부위

불만족 부위 신 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복둘레	소매길이	어깨너비	진동부위	χ^2
165~167.9cm	12(66.7)	5(83.3)	7(53.8)	13(54.2)	12(54.5)	-	11.472*
168cm 이상	6(33.3)	1(16.7)	6(46.2)	11(45.8)	10(45.5)	7(100.0)	
계(명)	18	6	13	24	22	7	90

* P<0.05

〈표 2-3〉 신장과 체형에 따른 바지(청바지) 불만족 부위

불만족 부위 신장, 체형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아랫배부위	바지통	밑위길이	바지길이	χ^2
165~167.9cm	11(55.0)	22(64.7)	7(63.6)	18(75.0)	8(50.0)	5(27.8)	10.839*
168cm 이상	9(45.0)	12(35.3)	4(36.4)	6(25.0)	8(50.0)	13(72.2)	
마른체형	18(90.5)	26(76.5)	5(45.5)	11(45.8)	10(62.5)	11(61.1)	12.015*
표준체형	2(10.0)	8(23.5)	6(54.5)	13(54.2)	6(37.5)	7(38.9)	
계(명)	20	34	11	24	16	18	123

* P<0.05

〈표 2-4〉 체형에 따른 재킷 불만족 부위

불만족부위 체형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길이 폭	어깨너비	진동부위	재킷길이	χ^2
마른체형	9(64.3)	-	-	19(79.2)	13(61.9)	3(75.0)	16(59.3)	14.932*
표준체형	5(35.7)	4(100.0)	4(100.0)	5(20.8)	8(38.1)	1(25.0)	11(40.7)	
계(명)	14	4	4	24	21	4	27	98

* P<0.05

이 아닌 편평한 형태로 꼭끼는(fit) 치수에 의한 불편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바지(청바지 포함)는 〈표 2-3〉과 같이 신장과 체형에 따라 불만족부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신장 두 집단간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불만족 부위는 바지통과 바지길이였으며 특히, 신장이 168cm 이상인 집단에서 바지길이가 불만이 많은 부위이었다. 이는 신장이 클수록 하지장이 길고 편평한 체형이므로 시판되고 있는 바지길이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또한, 체형에 따라서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마른체형에서는 엉덩이둘레가 불만족부위이며 표준체형에서는 바지통에서 불만족부위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여대생들에게 인기있는 의복품목인 바지는 신장과 체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의복치수 불만족이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불만족부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개인차가 많고 패턴 제작시 필요치수 항목이 스커트에 비하여 많은 하의류인 바지는 소비자 체형의 유형화에 맞도록 세분

화된 치수규격과 단촌식 패턴 연구가 필요하다.

재킷은 〈표 2-4〉와 같이 불만족부위가 신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체형 집단간에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둘레항목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재킷 디자인에 따라 신체치수의 드롭치 간격이 달라야 하나 시판되고 있는 재킷의 제품치수는 대부분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치수구분이 되어 있고 20대 여성의 체형특징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치수에 비하여 가슴둘레 치수는 작고 편평한 형태인 점을 고려치 않아 의복치수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3. 의복 만족도

1) 의복 만족 요인

의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에서 먼저 선택한 8개 문항을 유사한 특성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PC방법에 있는 varimax 회전법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1〉과 같이 고유치가 0.8이상

〈표 3-1〉 의복의 만족 요인

내용	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공통분산치
	명명	(심미적 요인)	(실용적 요인)	(경제적 요인)	(맞음새 요인)	
색상의 다양성		.82934	.09465	.09914	-1.4698	0.72820
재질의 다양성		.77605	.04249	-.03255	.14543	0.62627
디자인 선택의 다양성		.73719	-.08740	.19056	.14756	0.60918
문양의 다양성		.67231	.16958	-.10980	.04900	0.49521
세탁 및 관리의 편리성		.02822	.84821	.18301	.04293	0.75559
바느질 상태		.11614	.84115	-.12427	.03222	0.73751
가격 범위의 다양성		.05741	.04651	.96311	.09349	0.94177
사이즈 범위의 다양성		.10651	.06805	.09693	.97459	0.97517
아이겐 값		2.4945	1.39516	1.13808	0.84113	
설명력		31.26	17.4	14.2	10.5	
신뢰계수(alpha)		0.7530	0.6258	-	-	

이면서 전체 분산의 73.3%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는 4요인을 추출하였다. 고유치를 1 이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가격과 사이즈 범위의 다양성이 함께 묶어져 3요인으로만 추출되어 가장 중요한 의복 만족도 측면인 맞춤새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유치를 0.8 이상으로 택하였다.

요인1은 심미적 요인으로 색상, 재질, 디자인, 문양선택의 다양성에 대한 감각적인 요소로서 설명력은 31.2%이며, 요인2는 실용적 요인으로 세탁 및 관리의 편리성과 바느질 상태에 대한 것으로 설명력은 17.4%이며, 요인3은 경제적 요인으로 가격 범위의 다양성에 대한 것으로 설명력은 14.2%이며, 요인4는 맞춤새 요인으로 사이즈 다양성에 대한 것으로 10.5%의 설명력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의복치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렇게 4요인까지 선택하였다.

2) 의류품목에 따른 의복 만족요인과 의복 만족도와 의 관계
 의복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심미

적 요인, 실용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맞춤새 요인이라고 보고 각 의류 품목에 따라 어느 정도로 의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ENTER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4개의 의복만족도 요인의 요인점수로 하고, 종속변인으로는 9개 의류 품목에 대한 의복 만족도로 하여「매우 만족하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을 주었다.

〈표 3-2〉에서와 같이 스웨터(니트)류는 실용적 만족요인, 심미적 만족요인, 맞춤새 만족요인 순으로 의복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며 특히 실용적 만족이 영향이 제일크며 4개 변인에 의한 전체 변량의 설명력은 13.86% 이었다.

즉, 스웨터(니트)류는 니트의 특징상, 바느질 상태와 세탁 및 관리의 편리성에 대한 실용적인 면에서의 만족이 높을수록, 색상, 재질, 디자인 그리고 문양의 다양성에 대한 심미적 만족이 높을수록, 사이즈범위의 다양성의 맞춤새 만족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T셔츠(폴로셔츠)는 유의적인 만족요인은 없으며 전체 변량의 설명력이 6.20% 정도로 약하다.

〈표 3-2〉 품목별 의복 만족요인과 기성복 만족도와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t값	BETA	R ²	F값
스웨터(니트)류	실용적 만족	2.711**	0.20376	0.13858	6.35462***
	심미적 만족	2.398*	0.18213		
	맞음새 만족	2.361*	0.18026		
	경제적 만족	-0.030	-0.00223		
	constant	0.87501(2.168)			
T셔츠 (플로셔츠포함)	맞음새 만족	1.892	0.15072	0.06196	2.60905*
	실용적 만족	1.808	0.14182		
	심미적 만족	1.075	0.08517		
	경제적 만족	-1.001	-0.07886		
	constant	2.21148(5.995)			
블라우스(남방)	심미적 만족	2.339*	0.18153	0.10091	4.43313**
	맞음새 만족	2.252*	0.17565		
	실용적 만족	1.000	0.07676		
	경제적 만족	0.875	0.06748		
	constant	1.42215(3.621)			
제킷	맞음새 만족	3.019**	0.23398	0.11206	4.98507***
	심미적 만족	1.805	0.13917		
	경제적 만족	1.347	0.10321		
	실용적 만족	0.344	0.02624		
	constant	1.36194(3.378)			
바지 (청바지포함)	맞음새 만족	2.287*	0.18337	0.04993	2.07577*
	심미적 만족	1.169	0.09325		
	경제적 만족	-0.602	-0.04774		
	실용적 만족	0.454	0.03582		
	constant	1.71641(3.900)			
스커트	실용적 만족	1.813	0.14361	0.05701	2.35764
	심미적 만족	1.206	0.09638		
	경제적 만족	1.184	0.09415		
	맞음새 만족	0.743	0.05966		
	constant	1.63205(4.364)			
원피스	맞음새 만족	3.690***	0.28707	0.12759	5.66734***
	심미적 만족	1.818	0.14025		
	실용적 만족	0.991	0.07576		
	경제적 만족	-0.269	-0.02071		
	constant	1.34595(3.455)			
점퍼	실용적 만족	2.765**	0.21556	0.07333	3.12591*
	맞음새 만족	1.699	0.13454		
	심미적 만족	0.167	0.01316		
	경제적 만족	0.036	0.00282		
	constant	2.12186(6.658)			
베버리나코트	맞음새 만족	1.970*	0.15734	0.06551	2.75167*
	심미적 만족	1.929*	0.15299		
	실용적 만족	0.738	0.05795		
	경제적 만족	0.067	0.00528		
	constant	1.92934(5.270)			

* P<0.05 ** P<0.01 *** P<0.001

블라우스(남방)는 색상, 재질, 디자인 그리고 문양의 다양성에 대한 심미적 만족과 사이즈에 대한 맞춤새 만족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아지며 설명력은 10.99% 이었다.

재킷은 사이즈 다양성에 대한 맞춤새 만족과 색상, 재질, 디자인 그리고 문양의 다양성에 대한 심미적 만족 그리고 경제적 만족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아지며 그 중에서도 맞춤새 만족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들의 변량은 11.2%의 설명력을 갖는다.

바지(청바지)는 맞춤새 만족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를 높게 하는 요인이었으나 스커트는 유의적이 아니었다. 이 두품목의 설명력은 각각 5% 정도로 약하다.

원피스는 사이즈의 다양성에 대한 맞춤새 만족과 색상, 재질, 디자인 그리고 문양의 다양성의 심미적 만족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를 높게 하였고 특히, 맞춤새 만족이 매우 유의적이어서 만족도에 영향력이 크며 전체 변량의 12.76%의 설명력을 갖는다.

점퍼는 세탁 및 관리의 편리성과 바느질상태에 대한 실용적 만족과 사이즈의 다양성에 대한 맞춤새 만족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아지며 특히, 실용적 만족이 유의하게 나타나 영향이 크며 전체 변량의 7.3%의 설명력을 갖는다.

버버리나 코트는 사이즈의 다양성에 대한 맞춤새와 색상, 재질, 디자인 그리고 문양의 다양성에 대한 심미적 만족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를 높게 하며 전체 변량의 6.6%의 설명력을 갖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커트는 유의적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품목에 비하여 단순한 디자인과 패턴으로 대량 생산되어 불만의 요소가 다른 품목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어 기성복 스커트에 대한 의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밖의 모든 품목에서는 사이즈의 다양성에 관한 맞춤새에 문제점이 많아 의복 만족도를 낮게하며 특히, 원

피스에서 맞춤새 요인이 의복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크며 재킷→바지(청바지)→스웨터(니트)류→블라우스(남방)→버버리나 코트→T셔츠(폴로셔츠)→점퍼 순으로 맞춤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를 높게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스웨터(니트)류와 스커트 그리고 점퍼 품목에서는 옷의 특징상, 실용적인 만족이 의복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블라우스(남방)는 다른 품목과 조화(coordinated)시켜 입는 품목이라는 특징 때문에 색상, 재질, 디자인 그리고 문양에 대한 심미적인 요인이 소비자에게는 의복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되어졌다.

V. 결론 및 제언

신장 165cm 이상의 여대생 166명을 대상으로 기성복 구입시 맞춤새와 관련된 의복치수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를 여성복 의류품목에 따라 조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성복 구입시 맞춤새 결정부위는 T셔츠와 블라우스의 상의류는 가슴둘레였고, 바지(청바지)와 스커트의 하의류는 엉덩이둘레였다. 그러나 재킷과 점퍼류는 어깨너비였고 스웨터(니트)류와 옷의 길이가 긴 품목인 원피스, 버버리나 코트는 옷길이이었다. 이는 맞춤새의 편안함 보다는 유행에 민감한 의복 행동이었다.

둘째, 여성복 의류품목에서 의복치수 만족도는 T셔츠(폴로셔츠)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나, 「보통이다」수준이었고, 점퍼→버버리나 코트→블라우스(남방)→재킷→원피스→스웨터(니트)류→스커트→바지(청바지) 순으로 의복치수 만족도가 점점 낮아졌다.

바지(청바지)와 스커트에서 엉덩이둘레가 불만족 부위였고 스웨터(니트)류, 재킷, 원피스 그리고 버버리(코트류)에서는 그 품목의 옷길이이었고 블라우스, 점퍼류와 T셔츠(폴로셔츠)는 소

매길이가 불만족 부위이었다.

각 의류 품목마다 신장과 체형에 따라 의복치수 불만족부위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신장에 따라서는 T셔츠와 바지(청바지)이었으며 체형에 따라서는 재킷과 바지(청바지)이었다.

세제, 의복 만족의 내용을 요인분석 한 결과는 요인1은 심미적 요인, 요인2는 실용적 요인, 요인3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요인4는 맞춤새 요인으로 모두 4요인이 도출되었다.

의복만족도의 4요인이 각 의류품목에 따라 어느 정도로 의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사이즈의 다양성에 관한 맞춤새 요인이 의복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특히, 원피스에서 가장 맞춤새 만족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스웨터(니트)류와 스커트 그리고 점퍼 품목에서는 실용적인 만족이, 블라우스(남방)에서는 심미적인 만족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를 높게하는 요인이었다.

이상의 연구는 연구대상이 18세에서 20대 초반의 여대생에 한정되어있고 편의표본추출의 결과이므로 확대 해석시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층과 남자를 대상으로 의복치수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맞춤새가 향상되어 의복을 통해 이상형의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고자 하는 현대인에게 심리적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정재은,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7, No. 3, 1993.
- 성화경, 최경미, 김인순, 한미숙, 최혁주, 20대 미혼여성의 하반신 체형분류 및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Vol. 21, No. 4, 1997.
- 강혜원, 외상사회심리학, 교문사, 서울, 1995.
- 이선명,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의 관계, 한양여자전문대학교 교수논문집, Vol. 20, 1997.
- 민동원, 기성복의 구매 및 사용시 불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 홍병숙, 기혼여성의 의복구매의사 결정과정에 관한 실증적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 공업진흥청,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 1992.
- F.P. Mclean,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the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University, 1978.
- M.S. Ryan,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6.
- K. Anspach, Clothing Selection and Concep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3, No. 6, 1969.
- L.E. Shannon, Consumer Satisfaction with Cotton Fabrics in Relation to Selected Physical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1961.
- M.E. Roach & J.B.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65.
- M.S. Miller and M.S. Ryan, Mother and daughters Select School D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2, No. 6, 1960.
- 김재숙, 여대생의 의복과 용모의 만족도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Vol. 14, No. 1, 1976.
- M. Wall, L.E. Dicky, & K.W. Talarzy, Profiling Consumer Communication of Complaints About Clothing Performa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7, No. 6, 1979.

16. 이희남,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 및 신체측실 지수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Vol. 6, 1982.

17. 정홍숙, 정삼호, 성인여성의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와 체형 및 연령과의 관계, 중대가정논총, Vol. 4, 1990.

18. 채서일의 2인,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현사, 1993.

19. Labat, K.L. & Delong, M.R.,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1990.

ABSTRACT

A Study on Clothing Satisfaction of the Ready to Wear Garment for Women
 - focused on over 165cm in heigh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some of the problems consumers have with ready to wear garments sizing and clothing satisfaction the following women's garments : sweaters, T-shirts, blouses, jackets, pants, skirts, one-piece, jumpers and burberry(coats).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female students in community col-

lege. Employing a sample of 166 student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χ^2 -test, t-test, ANOVA,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erized as follows :

1) Purchasing clothing, subjects considered mainly bust circumference for T-shirts and blouse, shoulder width for jackets and jumpers, hip circumference for pants and skirts, and length for sweaters(knit), one-piece and burberry(coats), as a reference of fitting sites.

2) In relation with dissatisfaction with apparel fit, hip circumference of pants including jeans was found as the most unsatisfactory site. Besides, subjects were dissatisfied with skirts, sweaters, one-piece, jackets, blouses, burberry(coats), jumpers, T-shirts, in order.

In relation with height and body type were most dissatisfied with pants (jeans).

3) Factors related to clothing deprivation of ready-to-wear garment were identified as aethetics elements, practical elements, economic elements and fitness elements.

Fitness elements were most dissatisfied factors with all items of garments except for skirts.